

# “기도의 지팡이 성령의 전신갑주”

# News Letter

발행인 | 오정현  
기획 | 특새 TFT  
발행처 | 사랑의교회  
www.sarang.org

S A R A N G C H U R C H

## TODAY'S PRAYER



### 생명과 치유를 위한 부르짖음

#### 01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은혜에 관하여 하루살이 인생,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 02

특새를 통해 '아멘'으로 응답하는 옥토 같은 마음 받을 준비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기쁨부음을 받아 뚜껑이 열린 무한대의 영적 용량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 03

주님의 몸 된 사랑의교회가 택함 받은 사명의식으로 무장하고 공동체의 합심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21세기 판 출애굽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내 영혼에게  
낮선 자로 살지 않겠다는  
몸부림이 기도입니다”

- 유진 피터슨

특새출석표 >> 기도명언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photo by SRC

## 채움을 위한 미니멀라이프

### 버리고 비우는 생활

성령님을 아는가? 아니, 지금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성령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난방이 되지 않는다면, 관심사는 예쁜 화장이나 심지어는 아이들 교육이 아니고 난방이 되는 것일 터다. 만약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면 군말없이 생수를 원할 것이다. 우리의 최우선 소원은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한다. 잠깐! 성령을 교리적으로 알고 설명하는 것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예수님이 일급 순종으로 이루신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충만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두 번째로, 교회의 부흥과 함께 은혜받는 성도가 되려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유행교회가 파죽지세로 부흥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무형 교회(성도)도 들판의 불길처럼 살아난다. 1890년 초반에 평북 선천에 복음이 전해진 지 단 8년 만에 15,348명이 변화 받은 성령충만한 교인이 되었다. 그 지역에 1,500명 성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의 능력이 강력했다. 그 힘으로 평양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일제의 핍박을 견뎠다. 15년 전 부임하자마자 40일 특새를 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공중파 9시 뉴스에 강남에 새벽기도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본당에 입장하기 위해 새벽마다 줄을 섰다. 본당에 입장하기 위해 교인들이 뛰니 술집에 있던 조폭들도 뛰

어 들어와서 변화 받기도 했다. 나만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될까? 아니다. 교회의 은혜가 내 은혜, 가정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배를 품은 질그릇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보신다.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필요하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된다. 우주 최고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담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의 임재 아래 산다는 뜻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담을 때 가장 귀하게 사용 되는 그릇이 된다. 한 가지, 우리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닌 질그릇이다.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그릇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하신다. 그러나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령충만하게 해주신다.

질그릇은 깨어진다. 그러나 깨어져야 그 안의 보배가 보인다. 깨어지기 전까지는 성령 체험할 수 없다. 그릇의 입구를 막은 뚜껑을 열어 채우고 충만해질 수 있다. '아멘' 하는 순간 질그릇이 열린다. 닫히면 은혜 받지 못한다. 기도만이 영적 그릇의 뚜껑을 연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5:18 후반). 이 말씀은 명령형이다. 시작할 때부터 성령충만해야 한다.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늘 충만한 상태이어야 한다. 그리고 복수형이다. 공동체가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특새를 맞아 비우자. 끄집어내자. 뚜껑을 열자. 그분이 채우실 것이다.

이 기도를 드린 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인생기도 2**

## “찬양대 연습시간을 심령부흥회로 바꾼 기도”

조성환 목사

저는 오랜 세월 음악목사로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이 찬양대 주중 연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기도드릴 때 간구의 내용을 올려드리지만 때로 부인할수 없는 성령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임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생각들이 기도 가운데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생각을 좇아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큰 감동과 함께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너를 통해 일을 하려고 한다.”

늘 하는 찬양대 연습인데, 하는 마음이 들어 그 순간 “주님,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하고 반문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네가 하는 모든 말과 찬양 연습을 통해서 내가 찬양대원들 한사람 한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리기 원한다.”

저는 감격에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단지 주일예배를 위해 찬양대를 음악적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맡은 사역이니까 최선과 최고의 연주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정도가 아니라, 연습시간을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참으로 감격스러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성령님의 말씀에 저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이민자들로서 하루종일 일하고 다시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 주일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에 온 찬양대원들의 처진 어깨와 피곤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마치고 찬양대실을 나갈 때는 밝은 웃음과 가벼워진 어깨, 콧노래를 부르며 함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사역뿐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영적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보이는 연습이라도 함께 모였을 때는 제가 하는 모든 말들에 재갈을 물리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 연습 시간에 스쳐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각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 마디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올 수 있기에 이러한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은 제 삶에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요 7:18)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은 “여호와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다윗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을 사용하심을 (“빙자하여”) 자각하고 근신했습니다. 기도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 일도일도주성취 칠언절구 7행시 당첨 대표작

강미숙

일상속에 흘린눈물 어찌할바 모르던나  
도리없이 무너지고 슬픔빠져 헤메일때  
일생함께 나와가자 말씀으로 찾아오서  
도움의손 내미시고 질그릇을 채우시네  
주님은혜 차고넘쳐 매일의삶 기쁨일세  
성령의불 타오르니 기도마다 주님응답  
취한것이 아니라오 뚜껑열고 성령충만

강미숙 외 김형미(25번), 류영아(42번) 성도께서는  
영성사역부(02-3495-1040)에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지기 바랍니다.

### season2

오정현 담임목사가 추천하는

## 기도 고전, 기도 명저

### 기도일기

프랭크 루박 / (규장)



작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감사일기’를 써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영적독서도 그렇지만 영적일기쓰기 (spiritual journaling) 역시 우리의 심령을 사모함으로 채우고 성장을 가져다줍니다. 하루 일정 시간과 분량을 정해 놓고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일종의 영적일기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고유 문자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필리핀의 고도에 들어가 문자를 만들어주고 문자를 보급하여 문맹퇴치에도 크게 기여 (미연방 우정성은 1984년 9월 2일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초상이 그려진 기념우표를 발행)한 프랭크 루박은 이 책에 6개월 동안 쓴 자신의 기도일기를 공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역하기, 매 순간 하나님만 의식하고 집중하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기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기도일기를 쓰는 성도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 대학청년부, 말씀에 반응하다

특세의 첫 날, 하나님께서는 최근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나는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내 문제들에 대해 기도하는가? 최근 내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질 않았고 누적된 피로로 깊게 고민할 마음의 여유도 사라진 것 같았다. 이런 내 영적 상태를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에 나를 특세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신기하게 오늘 새벽은 평소와 달리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교회로 향하는 동안 내 마음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내게 필요한 특세의 첫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빈 질그릇이니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충분한 질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 많고 자기 실력만 의지하는 '뚜껑 닫힌 성격'이 정확히 내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다. 바쁘고 힘들수록 보통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마련인데 나는 그럴수록 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유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내 자신을 더 움아매고 붙드는 모습이었다. 선택하신 주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 현재 인생의 여러 전환점들 가운데 놓인 내가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부족한 나를 더 연단시키실지 기대된다.

주님, 마음이 완악한 저를 용서해주시고, 제가 매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 이호준(청년3부)

제 15차 가을 특세의 문을 대학3부에서 같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열었다. 어제까지 다녀온 대학부 리트릿에서 받은 은혜를 특세로 이어가기 위해 특세 전담을 다짐하고, 서로 모닝콜로 깨워주기도 하며 함께 모여 자리를 잡았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라는 질문이 그 어떤 질문보다 나에게 중요하다는 부분이었다. 겨울철에 난방 없이 지내다 보면 오로지 따뜻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성령 충만함에 갈급해하고, 그것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믿으며, 앞으로 남은 5일의 특세기간 동안 내게 가장 중요한 성령충만함을 주님께 구하고 싶다.

나는 지금  
성령충만한가

이번 특별새벽부흥회에서 우리 사랑의교회와 모든 성도가 함께 부흥하길, 그리고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의 자아가 깨어짐때문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란다.

한 명도 은혜에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는 특세 되기를! - 남궁지은(대학3부)

2년 전 특세를 통해 저는 우리나라 교육 회복이라는 비전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도중 저는 몸과 마음이 지쳐 멈춰야 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가지고 특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았습니다. 제겐 성령 충만함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쉽게 깨지는 질그릇 인생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영적 그릇의 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비전을 받았지만 제 능력으로 그 비전을 이루려고 무리하니 하나님께선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월요일 새벽 제 기도 속에는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 빈 그릇 안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상처 투성인 우리나라 교육의 치료자이시고 그가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다만 나는 "나의 생명과 은사, 미래와 명예도, 주 앞에 드리니, 사용하소서. 주 신뢰해. 난 믿네. 주께 불가능한 것은 없네"로 기도하며 주님이 성취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 남은 특세를 통해 제 영적 전신갑주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 이재현(대학4부)

보배가  
담긴 공간

깨어져야  
빛어지리

몇 주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한 특세 첫 날, 첫 말씀부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성령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임하셨을 때에야 지금 기도로 구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빛을 보면 볼수록 저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또렷이 드러나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제 피부색만큼이나 깊이 저의 영혼에 뿌리내린 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뽑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듯 했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저이기에 저의 악함과 죄 많음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깨어 없애 버리시고 새로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빛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인 대학부 지체들이 모두 이 깨어짐의 과정을 아멘으로 구하고 성령의 채우심을 경험하여 주님이 부여하시는 기쁨과 사랑과 회복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이 청년의 때를 주님 앞에 전에 없이 뜨겁게 살아낼 수 있기를, 또 이 불이 교회 전체로 번져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꿈을 꾸었습니다. - 한다혜(대학부)

## 공지

### 1. 기도 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입니다.

### 2. 강단 초대

오늘: 남·여, 여직장인 순장반 임원 /  
내일: 전문사역부서

### 3. 강사 소개

조성환 목사(미국 호프 대학교 교수) /  
내일: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 4. “생명과 치유” 증보기도 카드 활용 안내

특새 기간 응답 받길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강단 위, 그리고 각 예배실 입구에 비치한 카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회 카드를 수거하여 교역자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 5. 특새 출석표 안내

1면 “기도할 수 있는데...” 코너의 명문장을 오려서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 6일(월) 첫째 날 출석표도 명문장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숨은 그림 찾기 참여 안내

정답 사진과 함께 특새에서 받은 은혜를 “생명과 치유”의 은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을 추천하여 뉴스레터에 소개된 담임목사의 추천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 ‘일도일도주성취’ 7행시 당첨자: 강미숙(50번), 김형미(25번), 류영아 (42번) 성도. 오정현 담임목사의 도서 세트(5권)를 선물로 드립니다. 영성사역부(02-3495-1040)에서 수령 바랍니다.

### 7. “생명과 치유”의 은혜 게시판 활용

“생명과 치유”의 은혜가 넘쳐 흘러가도록 받은 은혜를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받은 은혜 나눌수록,  
푸른 감람나무 자라난다!”

특새기간 아름다운 땅 운영

6시~8시 30분(월-금)  
7시~8시 30분(토)  
가격 4,500원

## 특새 숨은그림 찾기



두 눈을 크게 뜨고 사진에서 보기의 숨은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해 보세요~



1)지팡이  
4)질그릇

2)물맷돌  
5)교회

3) 뚜껑

▶ 3면에 이어...

말씀을 받은 영가족들이 나누는 생명과 치유

## 닫혔던 뚜껑을 엽니다: 강단초대자들이 받은 은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무형교회라고 하면서도 저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그릇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고난 성격이지만 영적 뚜껑을 열고 성령을 받아 은혜와 감사를 주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 윤종현 집사 (남제자 4번)

설새 없이 계속되는 사역과 끝나지 않는 어려움들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책임과 어려움, 사역의 자리들이 저를 믿고 맡겨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니 기쁨과 감사,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2017년 더욱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더욱 기뻐하며 찬양하며 전진하겠습니다. 낙심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 김지혜 집사 (여직장인제자 11번)

훈련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맞이한 특새 첫날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깨어질까 무서워 가만히 놓여만 있던 질그릇 같은 나를 불려서 주님 일 할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시키셨으니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계속 일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온 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 김현아 집사 (여사역 2번)